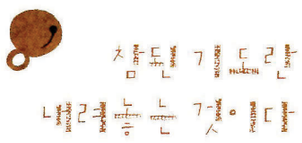
“인생엔 때론 위로가 아니라 답이 필요”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 5천원



백일기도를 끝냈으니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수행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아니다. 도리어 기도를 하면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놓아진다.
참된 기도란 바람과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누르는 일과 사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론 구속이기도 한 친구와 애인,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등등. 이런 복잡한 삶의 여정엔 장황한 위로보다 때론 단순한 답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군법사이자 인터넷 수행 공간 ‘목탁소리’의 지도법사인 법상 스님이 이번에는 인생 곳곳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들고 찾아왔다.

“우울하다”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괴롭다” “판단하지 마라” “기쁘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 마라” “사랑한다” “오히려 바라지 말고 구속하지 마라” 이것들은 어쩌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십, 오십이 넘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변곡점 하나하나에 마치 포스트잇을 붙이듯 이런 꼬리표를 붙여 가며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라고 이야기한다.

법상 스님이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구나 자기 안에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진리는 멀리도, 다른 데 있지도 않다. 그걸 아는 순간 각자 앞에 놓인 ‘역경을 통해 배울’ 수도, 현재 무엇이 있든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어차피 한 번 풀고 가야 할 내 삶의 몫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서 툭툭 털고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받아들임, 놓음, 알아차림,
내맡김, 나눔 등 갖추길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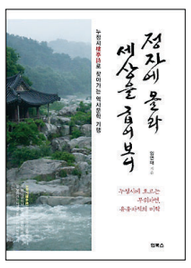
100여 컷 그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상 에세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스님은 무작정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마라. 우린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다”라고 스님은 이런 ‘답’을 내놓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실천법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 ‘놓아 버림’ ‘알아차림’ ‘내맡김’ 그리고 ‘나눔’이다. 수용하고, 놓아 버린 채, 그대로를 구경꾼이 되어 바라보고, 삶을 내 식대로 판단하지 말며, 다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하여 이 지구별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신분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눈부시게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제 스스로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삶을 다만 바라볼 뿐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 인연 따라 내 앞에 온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해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무기력해지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심도, 집착도, 미움도 없이 내 삶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평등하게 수용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한쪽에 짧은 시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글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본문이 시작된다. 시간이 없다면 카탈로그를 넘기듯 짧은 글들을 하나씩만, 또는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약해 온 용정운 씨는 이 책에 모두 100여 컷의 그림을 제공해 좀 더 싱싱한 생동감을 입혔다. 봄날 같이 따스한 글과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림들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은 이 책의 보너스다. **김주일 기자**

선비들의 정신수양과 지혜 깃든 ‘樓亭詩’ 210편



정자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니

임연태 지음
인북스 펴냄
1만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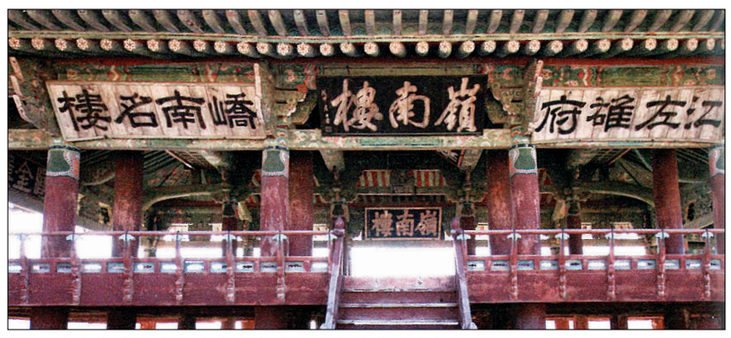
천년세월 관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누정시

무위자연과 유유자적 철학
담긴 명상 치유 문학

누정 22곳 현판에 걸린
누정시 210여편 소개

풍광이 수려한 곳마다 아름답게 서 있는 정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음풍농월과 선비들의 풍류다. 문학과 예술의 발상지로서 안성마춤인 이유다. 특히 누각과 정자의 안팎에는 시(詩)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다. 자연을 벗 삼아 무욕의 삶을 펼친 선비들의 대쪽 같은 기개와 시대 정신의 체취가 고스란히 서려 있다. 그래서 누정시(樓亭詩)라는 장르가 탄생했다. 이는 정자와 누각의 풍정을 소재로 한 시문이나, 누정의 아름다움 속에 세상 사는 지혜를 읊은 문인 선비들의 시다.

이 책은 전국에 남아 있는 누정시의 숨결을 역사와 문학적 관점서 살펴, 한국 정신문화의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한 선비 정신과 고전 문학의 향기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누(樓) 하나의 망가짐과 세워짐으로 한 고을의 슬픔과 기쁨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한 시대 도(道)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고 한 하륜(河崙, 1347~1416)의 말처럼, 누정시의 감상과 이해를 통해 흥망성쇠를 조감할 수 있다.



누각 정면에 걸려있는 영남루의 현판들이 이색적이다.

이 책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한국의 대표적인 누각과 정자 22곳을 찾아, 누정을 소재로 한 시와 누정의 현판에 걸린 누정시 210여 편을 소개한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의의, 시를 쓴 인물에 얽힌 영욕의 역사도 조명해 선비 문인들의 풍류와 기개, 예술적 향기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누정이 자리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제 1부는 바닷가에 소재한 누정들, 제 2부는 계류에 자리한 정자, 제 3부는 강변가 정자, 제 4부는 궁궐과 사찰에 소재한 누각, 제 5부는 평야와 산정에 소재한 정자들로 구성했다.

이 책은 선비들이 남긴 시문(詩文) 뿐 아니라 각 누정마다 창건자와 시대적 배경, 지리적 환경, 주변의 풍광과 인물에 얽힌 일화들을 상세히 기술해 역사 문학 기행이라는 특성에 충실한 책을 꾸미고자 했다. 누정시를 남긴 시인 묵객은 신라 시대의 최치원을 비롯하여 고려의 이규보, 문익점, 이색, 정몽주 등과 조선 시대의 하륜, 이이, 정철, 이산해, 김시습, 김병연, 서거정 등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로 이름을 떨친 선비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권력의 정점서 세상을 호령한 이들이 굴곡진 삶을 겪고 나서 누정을 짓고 강학에 전념해 재기를 다지거나 마음을 추스르며 귀거래사를 읊었음을 상기할 때, 누정시는 지혜를 모색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야에 은일해 자연과 교감하며 무위자연과 안분지족을 추구한 이들이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며 관조와 달관의 경지를 담은 누정시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

누정시야말로 우리 문학계가 특별한 관심으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정리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전문학 분야이다. 하지만 누정문학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조차 일천하기 그지없다. 학회나 대학은 물론이고 많은 지역의 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우려를 조금 씻어준다. 국문학도 출신인 저자의 학술적 탐구와 시인다운 시적 감성이 어우러져 튼실한 역사기행서를 읽는 기분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클릭! 이 책

명상으로 정화된 마음 죽어서도 가져갈 유일한 재산

마음경영

위오기 지음 | 공주대출판부 펴냄 | 2만원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알아차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고, 자애 명상과 관용 명상을 실시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협성대 정규진〉

공주대 경영학과 위오기 교수는 열린사이버대학 컨소시움 교양강좌를 운영하면서 대학정규학점 강좌인 〈명상과 마음경영〉을 개설해 대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수강할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경영학 교수가 왜 명상 강좌를 하냐고 의아해 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팬이 됐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변화를 느꼈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가 펴낸 〈마음경영〉은 강의 교재로 쓰던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함께 따라 할 수 있게 재구성했다. 저자는 “내 인생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 두 가지 바른 명상법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며 “세상에는 죽어서 못 갖고 가는 재산과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두 가지가 있는데 명상의 결과로 정화된 마음만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에 명상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실제로 위 교수는 20년 가까이 파아욱센터를 비롯해 고엔카센터, 참매센터 및 보리수 선원서 수행했고, 호두마을과 보리수 선원서 명상 지도를 해온 명상 전문가이다.

이번 책에는 명상 준비단계부터 물질과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일상생활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13가지 수행법을 통해 바른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전의 음성 파일 내용을 문자로 모두 옮겨서 누구나 책을 보고 명상을 따라할 수 있게 보완 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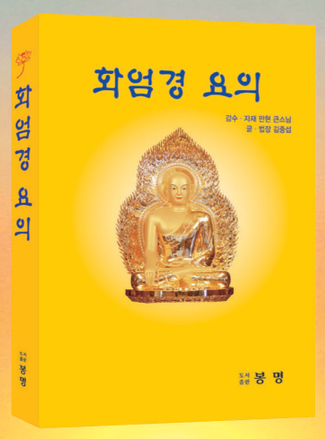
저자는 “저의 명상 체험으로 말하자면 우선 몸의 나쁜 병들이 거의 다 없어졌으며, 엄청난 몸과 마음의 고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그것들의 덩어리가 와해되고 무너지며 무수한 지혜가 생겨나 탐진치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됐다”며 “이전에는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사람처럼 고민에 빠져있던 제가 요즈음에는 전혀 고민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에는 ‘명상실습 보고서’와 ‘수강생 소감문 모음’도 넣어 실생활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한권으로 완성된 ‘화엄경 요의’

- 드디어 2600년 동안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장엄한 부처님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다.
-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의 핵(核)을 파헤치다.
-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 부처님의 절대성과 화엄세계관을 비롯한 《화엄경》의 진수(眞髓)를 현대물리학적으로 논증하다.
- 연화장세계를 정점으로 우리 우주를 넘어서 온 우주법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화엄경 요의’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

- 부처님은 ‘비로소 최초로 불신(佛身)을 갖춘 최초불(始成正覺)’이시다.
- 부처님은 우주법계를 포섭하시는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 절대자이시다.
- 《화엄경》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우주적위신력은 진실이다.
-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어 보살도를 성만, 무아를 완성하여 불신(佛身)을 갖춘 ‘붓다가 되라’는 것이 ‘화엄경의 요의’다.

근간서적
세계종교를 신불교 영산불교의 우주적 관점에서 본 비교종교학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불서총판 운주사 TEL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30쪽 | 특별가 25,000원